

## 예상치 못한 여정 창세기 44장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빈'이고 윌링던 교회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창세기 44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내내,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요셉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실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여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오늘 다룰 장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AI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AI에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 봤습니다. 저도 헛갈렸지만, 여러분들은 더 헛갈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AI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화려한 코트를 입고 셀카를 찍는 요셉"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문장을 입력할 때, AI는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본다면, AI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에 따르면, 요셉은 멕시코나 남미 쪽입니다. 요셉의 코트는 딱 맞아 보이고, 형제들은 여기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이상한 부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한 귀퉁이에서요 😊

저는 문장을 조금 수정했고, 그다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네요. AI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없앴네요, 잘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셉의 형들이 모두 아시아인들이네요. 그 형제들 중 한 명이 제 아들 중 한 명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모두 똑같아야 할까요 😊

저는 문장을 아주 조금 수정했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미지는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나, 찍혔을 당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에 찍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총 9명이 있고 가장 어린 베냐민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은 요셉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뿐입니다.

지금까지 요셉 가정의 여정에는 거짓말, 사기, 배신, 근친상간, 심지어 살인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 사람들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정은 완벽하지 않다
2. 여정에는 겸손함이 따른다
3. 여정은 십자가로 이어진다.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3장까지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뤄주셨던 것은, 모든 땅이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서 가족을 위해 곡식을 사 오게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씁니다. 형제들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서 막넛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시므온은 옥에 갇혀 남겨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올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43장은 요셉이 베냐민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베냐민은 형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고, 질투심에 대한 부분은 조금도 없이, 모두가 매우 행복했습니다. 요셉의 여정에 대한 제 기억상으론, 형들은 항상 질투심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정에는 풀어야 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 1. 여정은 완벽하지 않다.

43장 끝에서 빠르게 넘어가서 44장 시작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향하기 바로 직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 창세기 44:1-2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강조하거나 밀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할 단어는 '은잔'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잔이 아니라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은잔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식량을 넣어주고, 그들의 돈을 그 자루에 다시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몰래 자신의 잔을 가장 어린 동생의 자루에 넣으라고도 명령합니다.

#### 창세기 44:3-5

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3절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형제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형제들이 이른 아침에 집으로 떠나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 보다 먼저 일어나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앞 장에서 형제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밤새 폭 잤고, 곡식이 가득 찬 자루를 가져왔고, 시므온을 되찾았고, 베냐민도 함께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죠!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루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걸 참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루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루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고, 모두 겁에 질린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그들이 자루 안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어떤지 아시죠? 무엇보다, 제가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항상 랜덤으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자 상인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짐을 썼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될 때 그렇게 합니다. 가방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면 누가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는지 물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에 자루에 돈이 들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일에서 배운 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벅찬 가슴을 안고 완벽한 미래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니, 오히려 슬픈 감정이 들었을까요? 형제들은 너무 기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모두 잊었을까요?

어찌 됐건, 형제들은 일어나 떠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형제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을 쫓아가서 할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반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복수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강조 표시를 하시거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점을 친다'라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점술은 미래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알아내려는 행동입니다. 앞에 나온 2절에서 요셉이 '은잔'이라는 용어를 마치 은잔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사용했지만 그 은잔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용어는 요셉에게서 훗날 은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잔으로 인해 상황이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점쟁이한테 가거나, 타로 카드 점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매체를 찾아가 미래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돈, 결혼 생활, 자녀,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과 방향도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라면, 오늘 여기 교회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걱려가 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 이 구절을 팔에 타투를 한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의 맥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이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미래와, 소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 길이 완벽할 거라고 성경 어디에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약속하셨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밴쿠버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여러 번 다녔습니다. 비행은 직항으로 약 14시간 걸립니다. 이때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내 줄에 앉지 않아서 누워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땅콩 말고 다른 음식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 장거리 비행은 정신도 몸도 정말 힘들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가족을 보면, 근데 사실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 요점은

## 2. 여정에는 겸손이 필요하다.

창세기 44:6에서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잡고 주인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형제 중 누가 대표로 말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 누명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명을 쓰고 한 말이 흥미롭습니다. 서둘러 그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오해됐던 부분과 흥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돈을 갖고 어떻게 돌아왔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9절에 매우 급히 말합니다.

'죽다'와 '종들'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했고 청지기에게 그 은잔을 찾으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며, 모든 형제들은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 말고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은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서로를 책망했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형제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내가 아니라 재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에 뭔가가 바뀐 것입니다.

11절에서 '급히'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가장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나이 적은 자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형제들이 빠르게 움직였던 이유는 자신들의 결백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거나 결백을 확신하지 못할 때는 변명을 생각해 내기 위해 천천히 움직이게 되니까요.

여기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청지기가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가장 어린아이까지 모든 가방을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베냐민의 자루에 도착했을 때, 그 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딱 걸린" 순간입니다. "현행범으로 잡았다" 마치, 엄마가 쿠키 상자에 손을 넣는 아이 손을 딱 잡은 것 같은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문장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깊은 슬픔과 상심의 표시입니다.

형제들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만 옷을 찢었고 형제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 고통은 그들을 낮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14절에서 형제들이 모두 청지기와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쓰여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지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형집행까지 인도하는 교도관들은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조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도 언급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친 자는 죽여달라 했고 나머지는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혼자 걸었던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14절로 돌아가서, 저는 "유다"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과 43장 이후로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2번 언급되었지만, 이 장에서는 유다가 3번 언급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모르신다면, 이 부분만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한 것은 유다의 생각이었고,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인 악한 아들이 있었고, 유다는 속아서 며느리를 임신시켰습니다. 지금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 그 유다입니다. 형제들을 대신하여 누군가 말해야 한다면, 장남인 르우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16절), 누가 리더인지는 분명합니다.

요셉과 유다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땅에 엎드리니".. 겸손해진 행동입니다. 16절, 유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변명이 없다는 점을 잘 보세요. 유다는 실수나 오해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셨다"라고까지 말했지만, 이것은 말은 안 됩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유다가 "우리"라는 용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형제들이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잔을 갖고 있던 사람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두고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갔던 때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형제들은 지금 베냐민에게도 똑같은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약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그들은 더 이상 십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한 10대가 아니라,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 2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여정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들이 낮아지는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점입니다.

### 3. 여정은 십자가로 이어진다.

18절부터 44장의 끝까지, 유다가 구약에서 가장 긴 담화(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요셉이 한 모든 말, 그들의 반응,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모두 되짚어 봅니다. 저는 유다의 담화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아버지(v19)
- 아버지(v20)/• 아버지(v20)
- 아버지(v22)/• 아버지(v22)/• 아버지(v22)
- 아버지(v24)
- 아버지(v25)
- 아버지(v27)
- 아버지(v30)
- 아버지(v31)
- 아버지(v32)/• 아버지(v32)
- 아버지(v34)/• 아버지(v34)

이 이야기의 반전은 창세기 43:6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야곱, 아니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유다의 걱정은 자기 자신, 형제, 심지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걱정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고, 아버지를 깊이 걱정하면서 생각한 것은, 베냐민을 잃는 것은 아버지가 지옥으로 가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었고, 넷째 아들일 뿐이며, 게다가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도요. 우리는 이후 장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나 베냐민을 통해 오지 않고, 예수님은 유다의 깨진 가정을 통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 근친상간, 살인이 있는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해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가 말한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들은 죄가 없음에도,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고 그의 형제들은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16절에서, 그들이 죄가 없음에도 유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죠? 저는 유다가 은 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바꿀 완벽하게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올, 지옥의 다른 말, 그 스올로 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며 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를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힘듭니다. 대부분 쉽지 않지만, 특히 저의 딸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대신 아파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주저 없이 제 삶을 아이들의 아픔과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낮아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우리는, 교회로서, 과거의 실수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2. 유다의 리더십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3. 우리 관계에서, 심지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도,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